

원자력연료
KNF MAGAZINE

2024
VOL.172
MARCH + APRIL

Potential



INTRO



potential

우리 안에는 수많은 가능성이 내재해 있습니다.

발견됐는가, 발견되지 못 했는가
가꾸었는가, 가꾸지 못 했는가에 따라
다른 운명을 맞을 뿐입니다.

온기가 만물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계절,
어찌면 발아하길 기다려 왔을 가능성에
마음을 쏟아보면 어떨까요.



KNF MAGAZINE

원자력연료

#

2024
VOL.172
MARCH + APRIL

POTENTIAL



발행일

2024년 3월 22일

발행처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989번길 242(덕진동)

발행인

최익수

편집실

소통협력실 042-869-3444

기획·디자인·제작

경성문화사 02-786-2999

<원자력연료>는 <https://www.knfc.co.kr>의 E-Book과 App-Book '사보 원자력연료'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원자력연료>를 모바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용



iOS용

빛나는 KNF

- 06 요즘, KNF는
- 10 클릭! 인사이트
RE100 대안으로 부상하는
'CFE 이니셔티브'
- 14 안전 알람이
2023년 돌아보기
2024년 안전하기
- 18 KNF 사람들
23사번 입사 동기 세 사람의
숨겨진 재능 발견기

살맛나는 KNF

- 24 즐거운 심포
'여기는 지금 봄입니다'
봄의 땅, 춘천
- 30 지금은 뉴노멀 시대
회사원과 유튜버 사이
대세로 떠오른
'임플로이언서' 마케팅
- 34 그뻘 그랬지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음악 원석들의 향연
- 36 문화의 발견
곳곳에 잠자고 있던 가능성과
만남 시간
- 38 문학의 속삭임
최고 지도자의
삶의 기초가 된 한 마디
『도올, 시진핑을 말하다』
- 40 해시태그 이벤트
- 42 독자 마당

CONTENTS

10



18



24



NEWS

2024
Vol.172

March + April



고유원전연료 HIPER16 한울5, 6호기 상용장전 인허가 취득

우리 회사는 2월 22일 제191차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 결과 '한울5, 6호기 고유원전연료(HIPER16) 상용장전 인허가를 취득해, 금년 8월 최초로 한울5호기에 상용장전될 계획이다.

고유원전연료인 HIPER16(High Performance with Efficiency and Reliability)은 원전연료 원천기술 확보와 원전 안전성 향상을 위해 국가 전략과제로 채택돼, 한전원자력연료와 한국수력원자력이 2005년 9월부터 2010년 8월까지 기술 개발을 완료했다. 이후 한울6호기에 시범 집합체를 장전해 원자로에서 성능 시험을 수행했고, 2018년에 한울5, 6호기 상용장전을 위한 인허가를 신청했다.

HIPER16은 열적 성능과 내진 성능 등 안전성을 향상하고 연료 손상 가능성을 낮춘 고성능 고유원전연료로, 체코 등 원전의 해외 수출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유럽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요건인 사고 저항성 핵연료의 모체가 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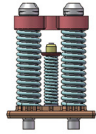
최익수 사장은 "HIPER16은 고성능 고유원전연료로서, 원전의 안전성 향상 및 원전 수출의 기반이 될 예정"이라며, "회사의 역량을 집중해 청정에너지로서의 원전 역할을 위한 사고저항성 핵연료 개발을 적기에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HIPER16™ High Performance with Efficiency and Reliability

Key Design Features of HIPER16™

일체형 상단고정체

- 집합체 휨 최소화
- 해체/재조립 용이



고강도 안내관

- 0.3g 내진성능 향상
- 일자형 충격흡수관
- 집합체 휨 최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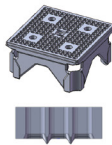
고연소도 연료봉

- 개량 피복관
- 큰결정립 소결체
- 연료봉 스프링 최적화



저압력강하 하단고정체

- 대형 사각 유로구멍
- 압력강하 최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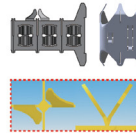
상부 지지격자(1)

- 연료봉 휨 최소화
- 수직형 스프링/딴플
- 인코넬 재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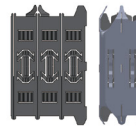
혼합 지지격자(2)

- 열적성능 향상
- 찢김 방지 외부격자판
- 지지격자 걸림 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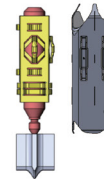
중간 지지격자(9)

- 프레팅마모 저지성능 향상
- 찢김 방지 외부격자판
- 지지격자 걸림 방지



하부 지지격자(1)

- 이물질 마모손상 방지
- 프레팅마모 저지성능 향상
- 지지격자 걸림 방지



기대 효과

- 고유원전연료 기술 확보 및 원전 안전성 향상
- 원자력 수출 산업화 기반 구축

활용 방안

- 국내 OPR1000 및 APR1400 원전에 상용공급
- 해외 수출 원전용 핵연료 공급



KNF-대전경찰청, 국가 중요시설 드론 테러 위협 대비 상호 협력 업무협약 체결

우리 회사와 대전경찰청은 2월 21일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선제적 테러 예방·안전활동을 강화하고 드론 테러 위협에 대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서명식은 우리 회사에서 열렸으며 최익수 사장과 대전경찰청 윤승영 청장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 각종 테러 및 상황 발생 시 상호 공조체계 유지 ▲ 상황 발생 시 초동 단계부터 공동 대응체계 강화 ▲ 정기적 진단을 통한 취약 요소 분석·보완 등 3개 분야에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각종 테러에 대한 선제적 예방활동 및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최익수 사장은 “금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민·경 상호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고, 자체 시설 보안대책을 강화해 테러로부터 안전한 회사를 만들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윤승영 대전경찰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각종 테러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국내 일반 테러 주관 기관으로서 관내 주요 테러취약시설과의 업무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KNF-Seaborg-GS건설 간 CMSR 핵연료 개발 사업타당성 분석 협약 체결

우리 회사가 3월 6일 서울 GS건설 본사에서 Seaborg 및 GS건설과 소형용융염원자로(CMSR, Compact Molten Salt Reactor) 핵연료 개발 사업 협력을 위한 사업타당성 분석 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2023년 6월에 체결한 KNF-Seaborg-GS건설 간 CMSR 연료 개발 협력 MOU의 후속 협약이다.

덴마크의 Seaborg사는 2014년부터 불화우라늄용융염(Molten Uranium Fluoride Salt)을 연료와 냉각수로 사용하는 원자로인 CMSR을 개발하고 있으며, 각 CMSR 모듈은 '파워 바지선'에 2~8기까지 설치돼 작동하도록 설계됐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3사는 공동 사업타당성 분석(Feasibility Study)에 본격 착수해 각 사 간 수행 역무 및 협력 사항을 우선 도출할 예정이며, 본 사업타당성 분석의 최종 결과에 따라 향후 프로젝트의 구체적 규모 및 일정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최익수 사장은 우리 회사가 고유 원자력 기술을 활용해 4세대 핵연료 미래 성장 기술 확보 및 유럽 시장 진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원자력연료 기술 개발과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해 글로벌 원자력연료회사로 도약하고, 미래 성장 및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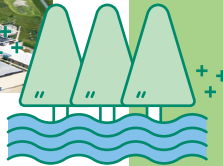
RE100 대안으로 부상하는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이 사실상 의무화되면서 청정에너지는 기업 생존의 문제가 됐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공급 여건이 열악한 우리 기업에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지향하는 'RE100' 패러다임은 일종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한다. 이에 정부는 CFE로 탄소중립 전략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해 5월 민·관 주도 'CFE 포럼(現 CF연합)'을 발족했다. 또한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UN 총회에서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 수소, CCS를 청정에너지에 포함한 'CFE 이니셔티브'를 제안했다.

글. 최민경 머니투데이 기자





韓, 재생에너지 부족…삼성·SK·현대차도 CFE 원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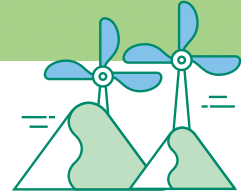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수력발전을 포함해 9.17%에 불과하다. 산지가 많고 좁은 국토 여건상 기업의 수요만큼 재생에너지를 급격히 확대하기도 어렵다. 일조량과 풍량 등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고 과다 발전 시 송전망에 부담을 주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2030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규모는 134.1TWh(테라와트시)로 늘어 전체의 21.6%를 차지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는 반도체와 자동차, 철강 등 고전력 산업 비중이 큰 우리 경제를 굴리기엔 턱없이 모자란다.

실제 RE100을 선언한 국내 주요 기업 가운데 재생에너지 조달 비율이 50%가 넘는 곳은 LG에너지솔루션 한 곳이다. 2위 삼성전자와 3위 SK하이닉스가 30% 안팎의 조달률을 보이는 가운데 4위 LG전자 5위 현대차의 조달률은 한 자릿수다. 국내 사업장에 한정하면 실적은 더 저조하다. 삼성전자의 국내 재생에너지 조달률은 9% 수준에 불과하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포스코, 한화솔루션, LG화학 등 국내 산업 부문 탄소 배출의 67%(2020년 기준)를 차지하는 주요 업종의 대표 기업들이 CFE(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는 이유다. 이들 중 상당수는 RE100에 가입한 기업이다. 전력 수요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기업들도 RE100만으론 탄소 중립 달성이 어렵다고 보는 셈이다. CFE의 핵심 에너지원인 원전업계 역시 CFE 이니셔티브를 환영한다. CFE 이니셔티브는 한 국수력원자력, 두산에너지빌리티 등 국내 원전 업계뿐만 아니라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공사(ENEC)의 지지도 얻었다.

**전력 수요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기업들도 RE100만으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본다.**





구분	RE100	24/7 CFE Compact	CFE 이니셔티브
시작	2014년	2021년	2023년
목표	2050년까지 기업 전력수요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실시간(24시간, 7일) 무탄소 전력 사용	무탄소에너지 이용 확대
범위	간접배출 (Scope 2)	간접배출 (Scope 2)	직접배출 + 간접배출 (Scope 1 + Scope 2)
주관 기관	The Climate Group 內 CDP 위원회	구글 및 UN 에너지 등	CF 연합
추진 주체 성격	민간	민간 주도, 정부 지원	민간 주도, 정부 지원
인정 에너지	특정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바이오매스 등)	온실가스를 직접 배출하지 않는 모든 무탄소 에너지원 (원자력, 수소 등 포함)	온실가스를 직접 배출하지 않는 모든 무탄소 에너지원 (원자력, 수소 등 포함)
실적 검·인증 제도	有	현재 無 (향후 有 예상)	有 (올해 마련 목표)
참여 기업 수	426개	145개	20개
우리나라 기업 수	36개	2개	(CF연합 회원 기업·기관)

‘RE100’보다 비용 적고 ‘24/7 CFE’보다 현실적

우리 정부는 ‘24/7 CFE’, ‘RE100’ 등 기존 청정에너지 캠페인보다 CFE 이니셔티브가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 ‘기술 중립적’ 관점에서 원전, 수소, CCS(탄소 포집·저장)도 청정에너지로 인정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만 인정하는 RE100보다 적은 비용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글로벌 기업이 국내 기업에 RE100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자사에 납품하는 비중만큼을 요구하는 것이다. 글로벌 공급사에 납품하는 매출 비중이 10%일 경우, 10%만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면 된다. CFE 이니셔티브와 병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구글 등도 무탄소에너지로 전력을 조달하는 ‘24/7 CFE’를 추진하지만 CFE 이니셔티브가 더 현실적이라는 반응이다. ‘실시간’ 무탄소에너지 공급이라는 원칙을 세운 24/7 CFE과 달리 CFE 이니셔티브는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접근한다. 처음엔 연간 단위로 무탄소에너지 공급량을 계산하고 장기적으로 실시간 조달을 목표로 한다.

CFE 이니셔티브는 청정에너지로 인정하는 에너지뿐만 아니라 목표도 포괄적이다. ‘전력의 무탄소화’와 ‘산업의 무탄소화’를 함께 추진한다. 전력만 탄소 배출이 없는 청정에너지로 조달하면 된다는 다른 캠페인과 달리 CFE 이니셔티브는 반도체, 철강 등 제조업 생산 공정도 ‘무탄소화’를 추구한다.

CFE 이니셔티브는

‘전력의 무탄소화’와

‘산업의 무탄소화’를 함께 추진한다.




CFE 이니셔티브



국제사회도 CFE 러브콜... 연내 CFE 이행기준 합의 목표

실제로 CFE 이니셔티브는 국제 사회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국처럼 재생에너지 여건이 불리한 국가들은 비용 부담이 큰 RE100보다 CFE에 관심을 보인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첨단산업 강국들도 산업 발전과 탄소중립의 동시 달성을 위해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를 함께 발전·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CF연합이 출범한지 반년도 되지 않았지만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5개국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이외에도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주요 7개국(G7)도 한국의 CFE 이니셔티브 구상에 동의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COP28(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합의문엔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수소 등이 주요 탄소 감축 수단으로 함께 명기됐다. 재생에너지만으로 탄소중립 달성이 어렵다는 국제 사회의 합의다. 올해 2월 설립 50주년을 맞은 IEA(국제에너지기구) 공동선언문에도 국가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무탄소에너지 기술 도입 촉진의 필요성이 처음으로 반영됐다. IEA는 한국과 함께 주요국별 CFE 활용 여건에 대한 공동 연구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전에 미온적이던 EU(유럽연합)도 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친화적으로 변하고 있다. EU는 탄소노미(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한 데 이어 최근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탄소중립산업법(NZIA)에도 원전, CCS를 포함했다.

정부는 주요국과 함께 CFE 국제 공동 작업반을 꾸리고 글로벌 이행기준 논의에 조속히 착수해 연내에 합의안 등 가시적 성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20여 개 국내 기업 중심인 CF연합의 외연을 확장해 지자체, 협·단체, 해외 기업 등으로 참여 주체를 다변화한다. 해외 기업의 경우 국내 투자협약(MOU), 준공식 등 주요 행사를 계기로 참여를 적극 독려할 것이다. 오는 4월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WEC(세계에너지총회), 9월 부산에서 열리는 기후산업국제박람회, 11월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리는 COP29에서도 각국에 CFE 이니셔티브를 제안할 예정이다. CF연합은 전 세계 각국의 지지를 바탕으로 오는 10월 국내에서 글로벌 CFE 포럼도 열 계획이다. 



빛나는 KNF
+
안전 알림이

고용노동부의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 결과 발표(2024. 3. 7.)에 따르면 2023년 조사 대상 사망자 수는 역대 처음으로 500명대를 진입했다. 2023년도 주요 지표들과 2022년 대비 지표를 비교함으로써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2년차의 효과성을 알아보며, 안전한 봄을 위해 주요 내용을 점검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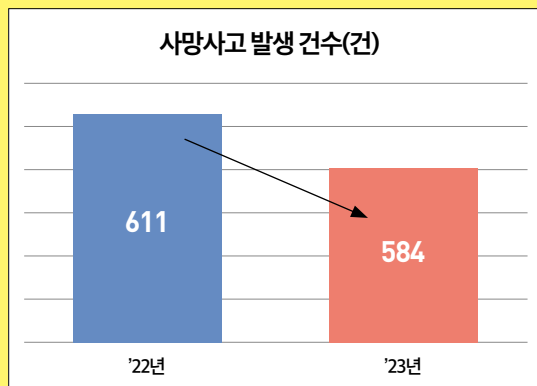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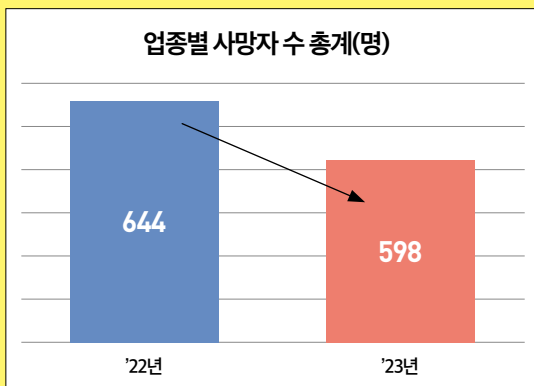
2023년 돌아보기 2024년 안전하기



업종별

2022년 대비 2023년 사망사고 발생 현황

2022년 대비 2023년은 각 업종별(건설업, 제조업, 기타 업종) 사망자 수가 감소했다. 특히 건설업이 38명(-11.1%) 감소해 전체적인 업종별 사망자 수를 낮추는 데 일조했다. 사망사고 발생 건수로도 건설업(31건, -9.5%)이 두각을 나타냈으며, KNF가 속한 제조업의 경우 사망자 수가 감소(1명, -0.6%)했으나 사망사고 발생 건수는 증가(+2건, 1.2%)해, 건설업과 기타 업종에 비해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규모별

2022년 대비 2023년 사망사고 발생 현황

규모별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 2년 차에 접어들면서 2024년 1월 27일부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며, 50인(억) 미만의 사망자 수와 사망사고 발생 건수의 지속적인 감소를 이끌어 냈다. KNF의 경우 [50인(억) 미만]이지만, 상주 협력업체와 용역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한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 조치, 안전보건 절차서, 매뉴얼 등의 적극적인 준수와 공유를 통해 유해위험요인의 제거에 적극 힘써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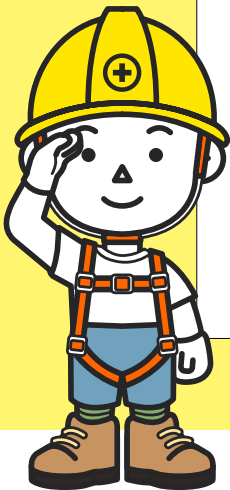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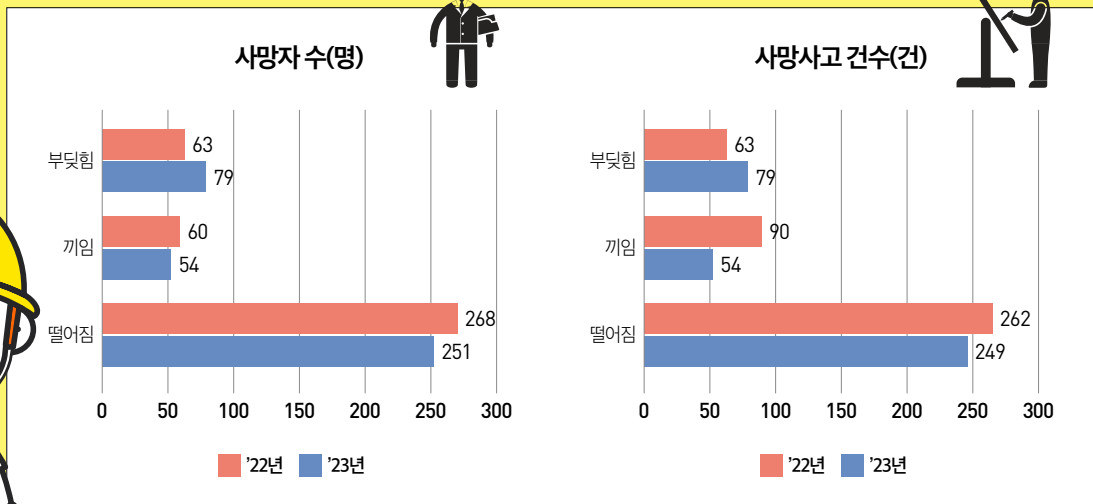


구분		'22년	'23년	증감(증감율)
사망자 수(명)	50인(억) 미만	388	354	-34(-8.8%)
	50인(억) 이상	256	244	-12(-4.7%)
사망사고 발생 건수(건)	50인(억) 미만	381	345	-36(-9.4%)
	50인(억) 이상	230	239	+9(+3.9%)

유형별

2022년 대비 2023년 사망사고 발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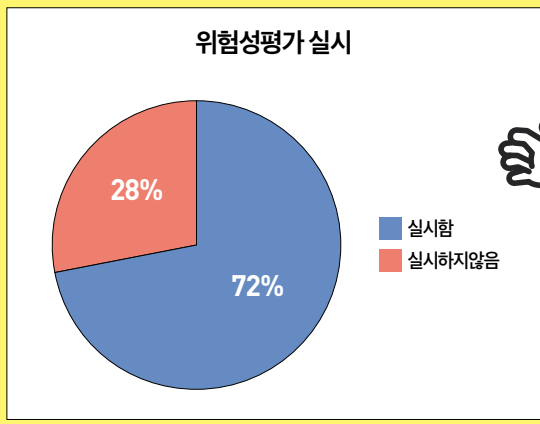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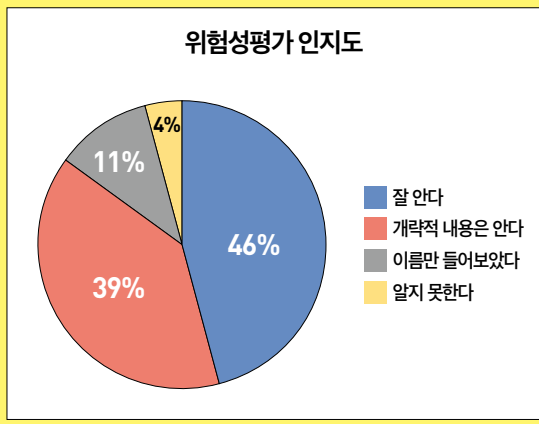
유형별로는 3대 사고 유형(부딪힘, 끼임, 떨어짐)의 2개년을 비교했을 때 끼임과 떨어짐 사망자 수와 사망사고 발생 건수는 감소했으나, 부딪힘은 전년 대비 사망자 수와 사망사고 건수가 증가했다. 전년 대비 총계를 보면 전체적인 사망자 수(전년 대비 -46, -7.1%)와 사망사고 건수(-27, -4.4%)는 감소했으나 부딪힘, 물체에 맞음 사고 유형의 증가에 관해서는 작업장 내 신호체계 확립, 근로자 안전의식 강화 등의 안전조치 강구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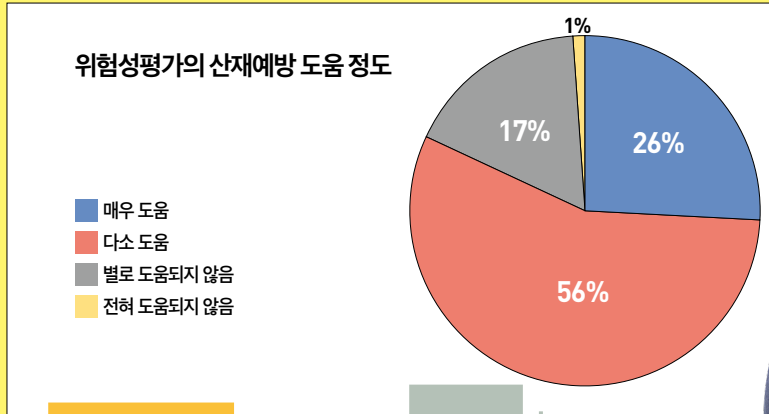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2년, 그리고 위험성평가

2026년까지 사고사망만인률을 OECD 평균 수준(0.29%)으로 감축하기 위해 수립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기업의 자발적인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통해 중대재해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일상에서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제거하는 안전활동을 추진 중이다.

작년 위험성평가 개정(23. 5.) 이후 주요 설문 결과에 따르면 위험성평가는 약 85%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사업장·현장은 약 72%에 달했다. 이는 지난 19년 실시한 「작업환경 실태 조사」의 결과와 대비하면 약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위험성평가 확대 및 간편화를 통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사업장·현장의 위험성평가 산재 예방 도움 정도에는 '도움 된다'는 답변이 약 82%를 차지했다. 이는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중대재해 예방의 핵심 수단으로 설정하고, 제도 개편 이후 현장에 적극 홍보 및 접목한 효과가 특특히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인지도, 실시율, 산재 예방 도움 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위험성평가 절차를 교육하고 실습하며 내실을 차곡차곡 다져야 한다.



안전을 위한 방안

3~4월 봄철 안전을 위한 주요 사항을 알아보며 1분기를 안전하게 매듭짓고 2분기의 안전을 도모해 보자.

2024 산업안전 대진단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하고 개선해 보세요!

산업안전 대진단, 무엇인가요?

- 중대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해 중소 사업장(5~50인 미만) 83만개소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을 자기진단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안전수준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산업안전 대진단, 왜 해야 하나요?

-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중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이행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궁극적으로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 대진단,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 (온라인) PC-모바일로 접속하며, 접속 방법은 아래의 절차를 따라하세요.

1단계

IPC 안전보건대진단 홈페이지 접속
= <http://www.kosha.or.kr>
(모바일) 우측의 QR Code 스캔

2단계

누리집에 포함된 “산업안전 대진단” 통합앱
클릭 후, 절차에 따라 진행



QR Code

- (오프라인) 우편·방문을 통해 안내받은 자기진단표를 작성하고,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 센터) ☎1544-1133

산업안전 대진단, 어떻게 진행 되나요?

대진단 실시	대진단 결과	안전개선 노력	대진단 상담·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기진단표 (10개 항목) 온·오프라인 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보건관리체계 수준 확인 대진단 결과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 지원 신청 (컨설팅/기술지도/재형지원 등) 자체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진단 상담·지원 센터 운영 맞춤형 지원

산업안전 대진단,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첫째, 대진단 실시 후 지원신청 사업장은 신속한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둘째, 상담·지원센터에서 사업장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셋째,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 대진단

중대재해 사이렌

0월 00일 중대재해 발생 동향 알려드립니다.

2023.2.14.(화) 중대재해 발생 일람

지역	발생일	발생시간	발생장소	사망	부상	발생원인
충청	2.14	14:00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시청에서 공주시청에서	1	1	주강입체 가시창에서 공주시청에서
충청	2.14	14:00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시청에서 공주시청에서	1	1	주강입체 가시창에서 공주시청에서

겨울철 화재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가이드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5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감사합니다.

중대재해 사이렌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우리 모두 참여해요!

겨울철에 한파 영향으로 얼었던 지면이 녹으며 공사장/도로/철거지/축대/옹벽/노후 건물 등의 붕괴 우려가 높습니다. 해빙기 철저한 점검 및 정비로 재난을 예방하여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내 생활주변 해빙기 위험지역

공사장/부근

- 공사장 주변 도로나 건물 등에는 지반침하로 인한 이상 징후는 없습니까?
- 지하수/지하수 유출로 인한 붕괴는 없습니까? (특히 지하수 유출이 많은 곳)
- 지하수 유출로 인한 붕괴는 없습니까? (특히 지하수 유출이 많은 곳)

철거지/낙석위험지역

- 철거지 주변 등에서 붕괴와 관련하여 비정상적으로 토사가 흘러내릴 위험은 없습니까?
- 낙석 발생지역 등 안전사고 위험 지역은 철거지 주변에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 비행기 주변 토사나 돌이 떨어지는 위험은 없습니까?

지반/축대/옹벽

- 옹벽의 축대나 흙막이 구조물에 지반침하로 기울어질 위험은 없습니까?
- 건물을 위한 흙막이 축대/옹벽은 지반침하나 균열 등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있습니까?

해빙기 안전점검

평장기라는 어떻게?

- 2월 중순부터 3월까지 건설공사장, 철거지, 낙석위험지역, 축대/옹벽, 구조물 등 해빙기 점검 시기에 대한 점검을 실시합니다.
- 점검결과에 따라 위험이 있는 경우 우선 통행금지 또는 사용 제한 등의 안전조치를 하게 됩니다.

주민 어려움은 어떻게?

- 주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주변에서 올백 균열, 철거지 토사 유출, 낙석 등 위험요소 발견 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신고 앱 / 포털(<https://www.safetyreport.go.kr>) 또는 관할 시·군·구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호흡기감염병' 예방 위한 개인위생수칙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 외출 후, 식사 전·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용변 후 등

기침예절 실천

- ✓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 ✓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기
- ✓ 기침 후 반드시 올바른 손씻기 실천
- ✓ 호흡기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 착용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호흡기 감염병 예방



빛나는 KNF
+
KNF 사람들



“나 도예
좋아했네...”

23사번 입사 동기 세 사람의 숨겨진 재능 발견기

‘아직 모르는 것이 많다’라고 말하는 이들은 지난해 입사한
직원들이다. ‘모르는 것이 많다’라는 것은 일정한 형식에 얽매어
있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만큼 다채로운 가능성의 씨앗을
품고 있는 것. ‘도예’라는 익숙하지 않은 세계를 만나 이들이 지닌
또 하나의 가능성의 문이 열리기를 기대해 본다.

글. 박예나 사진. 이성원





Ceramics One-day Class



절친 동기를 위한 '깜짝 이벤트'

봄기운을 머금은 햇살이 공간을 은은하게 채우던 오후 3시, 원데이 클래스 준비를 마친 도예 선생님이 세 사람을 반갑게 맞았다. 화사한 공간과 자못 잘 어울리는 세 사람이 다소 들뜬 모습으로 들어섰다. 지난해 함께 입사한 세 사람은 동기 중에서도 사무직이라는 공통점으로 더욱 끈끈한 사이가 됐다. 물론 23사번 내 사무직은 여섯 명뿐이라 모두 가깝게 지낸다고 여섯 사람은 종종 모여 점심도 먹고 퇴근 후에 보드게임도 즐겨 한단다.

“분기별로 여행도 가요. 최근에는 대전으로 여행을 다녀왔는데, 같이 짝라인을 탔던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저는 무서워서 타지 않으려다가 동기들과 함께라서 도전해 봤어요. 생각보다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양지은 사원이 아이같이 해맑게 웃으며 말했다.

오늘은 모집 기한 내에 시간을 낼 수 있었던 양지은, 이희건 사원 두 사람이, ESG소통부에 근무하며 사보 제작을 담당하는 홍송지 사원을 놀래주려 몰래 참여 신청을 했다. 기대에 찬 듯, 호기심에 찬 듯 눈을 반짝이는 홍송지 사원을 보니 과연 친밀한 사이여야 가능한 깜짝 이벤트가 아닌가 싶었다.

도예 원데이 클래스는 핸드빌딩과 물레를 모두 체험할 수 있는 수업으로 구성돼 있었다. 체험을 시작하기에 앞서 어떤 용도와 어떤 모양의 자기(瓷器)를 만들지 구상하고 스케치하는 시간이 주어졌다. 흔히 접시나 그릇을 떠올리는 순간에 홍송지 사원은 ‘인센스 홀더’를 떠올렸다.

1) ‘인센스(incense)’는 디퓨저와 같이 향기를 내기 위해 사용하는 재료나 도구로, 특히 불을 피워 사용하는 것을 칭한다. 일종의 향(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인센스를 고정하기 위해 곁들이는 도구를 ‘인센스 홀더(holder)’라고 한다.



세 사람은
작은 손짓 하나에도
춤을 추는 점토에
완전히 사로잡힌 듯
환호성을 쏟아냈다.





“얼마 전에 집에서 사용하던 인센스 홀더가 망가져서 새것이 필요했거든요!”

인터넷 검색을 하며 샘플링하던 홍 사원은 어느새 유려한 곡선의 홀더를 그려내기 시작했다. 요리를 좋아한다는 양지는 사원은 파스타를 담을 적절한 크기와 깊이의 접시를 고심하고 있었다. 한편 이희건 사원은 다음으로 활용할 접시 하나, 아담한 크기의 요거트 볼 하나, 양중맛은 딸기 모양의 열쇠고리를 척척 그려냈다.

물레에 혼을 빼앗긴 세 사람

스케치를 마치고 나면 백토와 아이보리도, 흑토 중 어떤 점토로 만들지 골라야 한다. 구워졌을 때 색상도 다르지만, 유약에 따라 구현되는 범위도 달라지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하는 지점. 클래스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한 가지의 점토로 통일해야 한다는 특성까지 더해져 세 사람은 고민과 토의(?)를 거듭했다. 그리고 마치 ‘흰색이’ 오늘의 콘셉트였던 양 ‘백토’로 합의한 후 물레 앞으로 웅기증기 모여앉았다.

선생님은 무작정 뛰어들기보다 원리를 이해하고 만들기를 바란 듯 직접 시범을 보이며 그릇으로 빛어지는 과정 하나하나를 차근차근 설명했다. 손의 위치나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할지, 어느 정도의 강도로 힘을 주어야 할지, 깊이를 만들거나 입구를 넓히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등에 대해 꼼꼼히 알려줬다. 과연 단시간에 학습하고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세세한 강의에 부담될 법한데도, 세 사람은 작은 손짓 하나에도 춤을 추는 점토에 완전히 사로잡힌 듯 환호성을 쏟아냈다.

그리고 마침내 직접 점토를 빚을 차례가 됐다. 두 사

람은 핸드빌딩 재료가 준비된 테이블에, 한 사람은 물레 앞에 앉았다. 세 사람은 이 또한 하나의 놀이인 양 누가 먼저 물레를 체험할지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했다. 양지는 사원이 첫 순서로 당첨됐다. 긴장된 기색이 라곤 찾을 수 없이 시작과 함께 몰입한 모습이었다. 아기자기한 성품 덕분에 시작 전부터 기대를 한 몸에 받던 그녀였다.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라 차분히 임한 양 사원은 금세 컵 하나를 만들어 내곤 뿌듯한 듯 배시시 웃어 보였다.

성향 따라, 체력 따라(?) 즐기는 과정도, 결과물도 제각각

물레 체험은 물레의 회전력에 기댈 수 있다면 핸드빌딩은 온전히 두 팔과 두 손의 힘으로 해내야 한다. 밀가루 반죽처럼 원통형으로 두툼하게 뭉쳐진 점토를 일부 도려내 밑대로 쓱쓱 미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 밀릴 때마다 짹짹 늘어나 점차 평평해지고 있는 이희건 사원의 점토와 달리 정체 현상을 겪고 있는 홍송지 사원의 점토를 보니, 보기보다 쉽지 않은 모양이다. 또는 내향형이라 쉬는 날이면 꿈쩍도 않지만 생존을 위해서 ‘필라테스’를 하고 있다는 이 사원의 체력이 빛을 발한 것일 수도. 조심조심 신중을 기하는 두 사람에 비해 이희건 사원의 행보는 단연 돋보였다. 만들고자 하는 접시의 높이에 맞춰 서슴없이 조각칼로 점토를 도려내는가 하면, 매무새에 따라 미묘하게 달라질 겉면의 질감이나 크기에도 크게 개의치 않고 빠른 속도로 작업을 마무리해 갔다. “손재주가

없어 욕심을 부리지 않아 그렇다”라고 말하지만 선생님은 세 사람 다 숨씨가 좋다고 연신 칭찬이었다. 시종일관 흥미로운 표정으로 임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건데, 이 사원은 결과물에 대한 만족보다 과정에 대한 만





원데이 클래스의 묘미는 이토록
다른 성향이 오롯이 드러나고
서로를 알아간다는 데 있다.



죽에 조금 더 중점을 둔 듯 보였다. 체험을 마치고도 누구보다 흥가분해 보였다.

원데이 클래스의 묘미는 이토록 다른 성향이 오롯이 드러나고 서로를 알아간다는 데 있다. 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같은 대상을 만들더라도 다른 형태로 결과도 도출된다는 점이 흥미롭다. 달리 말하면 각자가 가진 경험과 재능에 따라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지는 셈이다. 사무직 여섯 사람이 함께 떠나는 여행에서도 성향은 생생하게 드러난다.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룹과 소파나 침대에 누워 휴식을 보내는 그룹으로 나뉜다고 오늘 체험한 도예 클래스는 이 두 성향의 그룹이 함께하기에 안성맞춤이라고 세 사람이 입을 모았다. “또 하러 올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모두가 즉시 “YES!”라고 답할 정도로 외향인과 내향인 모두를 흥린 시간이었다.



Information

513 세라믹 스튜디오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219번길 16

클래스 구성: 핸드빌딩 2종(접시, 열쇠고리), 물레 1종(그릇 또는 컵)



봄꽃처럼 한껏 피어날 나날을 기대하며

23사번은 완연한 봄이 되는 4월, 입사 1주년을 맞는다. 이번 호에 잘 맞는 손님이 찾아든 셈이다. “솔직히 1년이 지난 것이 믿기지 않는다”라고 이희건 사원은 입을 뗐다. “정말 시간이 빨리 흘렀다”라고 양지은 사원이 맞장구쳤다. 홍송지 사원도 “첫 직장이라 일도, 사회생활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한 게 있나 싶을 정도로 정신 없이 보냈다. 그렇지만 잘해왔고, 잘해 나갈 거라고 믿고 싶다.”라고 1주년을 맞는 소감을 밝혔다. 이 사원은 “회사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이들의 노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1년이였다. 저도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해야겠다고 다짐했다.”라고, 양 사원은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선배와 동기들에 감사하다.”라고 지난 시간과 다가올 시간의 기로에 선 소감을 전했다.

여행 메이트가 된 사무직 여성 사람들은 1주년 기념으로 또 한 번 여행을 계획하고 있단다. 봄꽃이 만발할 때는 명소를 찾아 피크닉을 함께 즐기고 싶다는 말도 덧붙였다. 아직 그 누구보다 많은 잠재력을 품고 있을 이들이 함께 보내는 시간 속에서 서로의 개성과 성향을 존중하고 영향을 주고받으며 성장해 나갈 것을 상상하니 사뭇 응원하고 싶어졌다. 

mini interview



도예를 직접 해보니 어떤가요?



재무원가부 양지은 사원

평소 해보고 싶던 도예 클래스를 좋은 기회로 동기들과 함께 참여해 볼 수 있어 즐거웠습니다. 특히 같은 색의 흙으로 만들어도 유약에 따라서 전혀 다른 무늬와 색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신기하고 흥미로웠습니다!



조직예산부 이희건 사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재밌었습니다! ‘비단 겹 하나 만드는 데도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는구나’를 깨달았어요.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역시 물레인데요, 매끈매끈한 감촉이 좋았고 제 손이 닿는 대로 시시각각 바뀌는 것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ESG소통부 홍송지 사원

제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내는 순간에 온전히 몰입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돌아가는 물레를 따라 흙의 표면을 빗히 쳐다보면서 당기고 모으는 동작을 반복해 제가 생각하던 곡선의 형태를 만들어 냈을 때 성취감이 있더라고요!

살맛나는 KNF

+

즐거운 심포

‘여기는 지금 봄입니다’
봄의 땅,
춘천



유난히 봄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분명 유난스러운 겨울을 지내고 있을 것이다. 그만큼 어려운 이들에게 겨울나기가 어렵다. 식물도 인간사와 다르지 않다. 칼바람 부는 2월, 꽃샘추위 성성한 3월을 이겨내야 한다. 고난 속에 피는 꽃들이 그래서 아름답다. 춘천은 봄 춘(春)에 내 천(川)을 쓴다. 봄의 땅이다. 이름만으로도 춘천을 찾을 이유가 분명하다.

글·사진. 임운석 여행작가



숲에 둘러싸인 제이드가든



스튜디오제이드를 배경으로 톨립이 만개했다

김유정 작가의 동상



힐링 명소 제이드가든

호반의 도시 춘천은 소양강과 북한강이 도시를 관통하고, 의암호, 청평호, 소양호, 춘천호가 도시 전체를 축축이 적신다. 경관은 물론이고 다채로운 체험 거리가 풍부해 영서지방에서 가장 많은 관광지를 보유한 관광 도시다. 국내 최장 길이(3.61km)를 자랑하는 춘천 삼악산 호수케이블카는 의암호를 가로질러 삼악산마저 정복했고, 아이들이 집에 갈 생각을 하지 않아 엄마들이 애를 먹는다는 레고랜드 코리아까지 자리 잡고 있다. 그 가운데 북한강을 사이에 두고 경기도 가평을 마주한 춘천 제이드가든이 자리한다. 이곳은 답답한 도시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삶의 활력과 생기를 북돋는 힐링 명소다. 서울과 춘천을 연결하는 굴봉산역이 지척인 데다, 자가용을 이용해도 서울에서 1시간 30분 안팎이면 달는 거리라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다.

굴봉산(307m) 기슭에 자리한 제이드가든은 16만㎡ 대지에 자연 지형을 그대로 살려 조성됐다. 특히 굴봉산 깊은 숲속에서 발원한 작은 계곡물길을 따라 조성된 10개의 테마 정원과 4천여 종의 수종이 어우러져 만들어 내는 아름다움은 비할 데가 없다. 정원은 세월과 사람의 정성을 먹고 자라는 생명 그 자체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정성과 맘이 더해질수록 가치와 아름다움이 쌓인다. 물론 세월의 흐름에 따라 쇠락하기



스튜디오 제이드에는 가드닝에 필요한 용품들을 판매한다

숲과 정원은 지나온 세월만큼 풍성해진다.

풍성함에 깃든 치유의 힘,

그것이 숲과 정원의 잠재력이다.

봄꽃이 만개한 제이드가든



도 하지만, 숲과 정원은 지나온 세월만큼 풍성해진다. 그 풍성함 속에는 엄청난 치유의 힘이 숨어 있다. 숲이 가진 치유의 힘은 과학 문명이 추구하는 디지털 세계와 정반대 방향이다. 계절의 변화를 바라보며 감동하고, 겸손을 배운다. 또한 해가 거듭될수록 성숙이라는 열매를 거둬들인다. 이것이 숲과 정원의 잠재력이다.

숲속에서 만나는 작은 유럽

서울에서 경춘가도를 타고 춘천에 진입한다. 북한강을 가로지르는 경강교 아래에 연둣빛 잎사귀와 반짝이는 윤슬이 계절의 변화를 노래한다. 호반의 도시다운 모습이다. 다리를 건너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제이드가든 팻말이 나오고 이윽고 목적지에 도착한다. 높고 푸른 하늘 아래 울창한 숲이 요새처럼 제이드가든을 에워싸고 있다. 주황색 기와지붕과 벽돌로 마감한 살롱 제이드와 스튜디오 제이드 두 곳 모두 르네상스의 탄생지로 손꼽히는 이탈리아 중부 토스카나 지역의 건축 양식을 닮았다. 이곳을 '숲속의 작은 유럽'이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살롱 제이드는 지역에서 재배한 식자재를 이용해 정성껏 만든 식음료를 선보인다. 그 옆 스튜디오 제이드는 가드닝에 관심이 있다면 꼭 들러야 할 곳이다. 실용성은 물론 심미성까지 겸한 가드닝 용품부터 공예 작품,

환경과 자연을 생각하는 브랜드 제품까지 가득하다. 또 공간 한편에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어 한층 풍성한 정원 문화를 엿볼 수 있다.

스튜디오 제이드를 빠져나오면 장막에 가려있던 유럽풍 정원이 모습을 드러낸다. 제철 맞은 꽃들이 온몸에 햇살을 받으며 방긋방긋 웃고, 여체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조각품이 멋을 더한다. 이후부터 제이드가든의 비밀스러운 정원이 베일을 벗듯 모습을 드러낸다. 먼저 이탈리아인 웨딩가든과 영국식 보더가든이 나란히 자리하고, 그 뒤로 은행나무 미로원, 꽃물결원, 수생식물원, 만병초원, 원추리정원, 앞의 정원, 이끼원, 블루베리원이 계곡의 흐름과 지형의 높낮이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어진다.

정원에서 마주한 생명의 시간들

이탈리아인 웨딩가든은 제이드가든을 대표하는 장소로 많은 관람객이 인증 사진을 남기는 곳이다. 긴 수로와 화단, 대칭을 이루는 회랑이 볼만하다. 이어 철 따라 다채로운 꽃들로 장식되는 영국식 보더가든을 지나 은행나무 미로원에 닿는다. 일반적으로 미로정원은 측백나무로 꾸미기 마련인데, 이곳은 은행나무로 조성됐다. 흔히 미로원에 들어서면 너나 할 것 없이 출구 찾기에 여념이 없다. 하지만 은행나무 미로원에서는 출구를 찾

김유정역 역사 주변의 포토존



기보다 해매는 편이 유익하다. 흔치 않은 키 작은 은행나무와 교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꽃물결원은 그 이름처럼 식물들이 물결치듯 자리한다. 봄이 온몸으로 스미는 듯하다. 공기 또한 청정해 오래 깊이 숨쉬기 좋다.

지금껏 봄철에 인기 있는 정원을 거닐었다. 이후부터는 여름철에 인기 있는 정원이 펼쳐진다. 수생식물원과 원추리정원, 이끼원이 바로 그곳이다. 시원하게 물을 뿜는 분수와 폭포, 거기다 특유의 서늘한 기운까지 느낄 수 있다. 여기저기 새소리도 낭자하다. 무더운 여름이라면 이만한 곳도 없겠다. 한 걸음씩 옮기며 정원을 감상하다 보면 어느덧 블루베리원에 이른다. 여기서 재배하는 블루베리는 단순히 관상용이 아니다. 6월 쯤 관람객들이 블루베리 수확 체험을 할 수 있다. 블루베리원을 지나면 야생화 언덕을 따라 조봇한 오솔길이 이어진다. 길은 숲의 귀족이라 불리는 자작나무숲으로 연결된다. 그 주변에 작은 카페와 실만한 곳, 사진 찍기 좋은 곳들이 많다.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언덕에 오르면 제이드가든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겨울 같은 인생을 산 소설가, '봄봄'을 쓰다

김유정역은 소설가 김유정의 이름을 따서 지은 역이다. 역 이름에 인물명이 들어간 곳은 이곳이 유일하다. 원래 이름은 신남역이었다. 이후 춘천시의 요청에 따라 2004년 김유정역으로 개명했다. 지금의 김유정역은 2010년 경춘선이 개통되면서 한옥 양식으로 새로 지은 것이다. 옛 김유정역은 새 역사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 1939년에 지어진 옛 김유정역은 새 역사가 생기면서 더 이상 열차가 서지 않는다. 기차가 서지 않는 폐역의 아련함이라니. 하지만 새것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옛 감성이 남아있다. 역사에는 옛 흑백사진들과 역무원들이 사용하던 장비, 제복, 업무일지와 승차권 등이 전시돼 있다. 역사 밖에는 녹슨 철로 위에 오랜 세월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무궁화호 열차가 있다. 이 열차는 현재 관광안내소와 북카페로 운영 중이다. 주변에 사진 찍기 좋은 조형물들이 많아 이른바 '설정샷'을 찍기에 그만이다. 역사 가까운 곳에 강촌역을 오가는 레일바이크 승강장이 있다. 강변을 유유자적 운행하는 레일바이크를 타고 낭만에 취해보도 좋겠다. 느릿느릿 짧은 산책을 끝내고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김유정문학촌으로 향한다.

소설가 김유정은 동시대를 살았던 이상, 운동주와 공통점이 많다. 암울한 시대를 살았던 작가라는 점이 그렇고, 30세 이전에 생을 마감했다는 점이 그렇다. 김유정은 스물아홉 살에 세상을 등졌다. 하지만 그가 남긴 작품은 여전히 회자되며 감동과 재미를 선사한다. 국민 단편소설 『동백꽃』 『봄봄』을 비롯해 30편의 소설과 수필 12편을 남겼다.

김유정이 태어난 곳은 김유정역이 있는 신동면 실례마을이다. 김유정역에서 3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 김유정문학촌엔 김유정기념관과

꽃물결원은

그 이름처럼

식물들이 물결치듯

자리한다.

봄이 온몸으로

스미는 듯하다.



travel information

① 여행 팁

* 대중교통으로 제이드가든을 찾다면 춘천행 열차를 이용하자. 서울 상봉역에서 승차, 굴봉산역에서 내린다. 역에서 제이드가든까지 셔틀버스가 있다. 오전 10시 45분부터 오후 4시 45분까지 1일 6회 운행한다.

* 자가용 없이 춘천 여행을 계획한다면 시티투어 버스를 추천한다. 춘천 시티투어는 요일마다 코스가 다르다. 오전 10시 30분 춘천역을 출발해 오후 5시에 춘천역으로 되돌아온다(1일 6시간 30분 소요). 제이드가든이 포함된 코스는 금요일이다. 성인 기준 6,000원이며 중식비와 관광지 입장료는 별도이다. (문의: 티앤비여행사 033-252-3353)

* 자가용 여행객이라면 의암호 드라이브를 추천한다. 의암호는 호반 순환도로와 자전거 길을 비롯한 각종 레포츠 시설이 잘 마련돼 있다. 주변에 삼악산, 흥국사, 등선폭포 등 관광지 많다. 의암댐을 기점으로 애니메이션박물관~박사마을~춘천댐~춘천인형극장~소양강치녀상~공지천교~춘천수변공원~김유정문인비를 거쳐 의암댐으로 되돌아온다.

② 관광지 관련 문의

제이드가든 033-260-8300
 김유정문학촌 033-261-4650
 강원도립화목원 033-248-6685



제이드가든의 건물들은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역의 건축 양식을 닮았다



옛 김유정역의 플랫폼



김유정문학촌에 자리한 조형물

김유정생가 그 맞은편에 김유정 이야기집과 소설의 한 장면을 보여주는 설치 작품들이 놓여있다. 김유정기념관에서는 짧고 굵게 살다 간 김유정의 일대기와 그의 작품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기념관과 연결된 생가 마당에는 작은 연못과 정자가 있고 그 옆 마당에 『동백꽃』의 한 장면을 묘사한 조각상이 있어 눈길을 사로잡는다. 김유정 이야기집에는 소설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송출해 아이들도 흥미로워한다.

김유정은 부유한 지주 집안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병약한 탓에 매우 소심하고 내성적인 아이로 성장했다. 절절한 사랑을 했지만 결실을 거두지 못했고, 그 아픔을 타고난 글솜씨를 발휘해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어갔다. 짧은 생을 살다 간 그의 삶이 소설보다 더 극적이다.

김유정은 많은 작품을 자신이 태어난 이곳 고향 마을을 배경으로 썼다. 문학촌 뒷산에 실레이아기 길이 조성된 이유도 그 때문이다. 실레이아기 길은 야트막한 산길을 따라 걷는 둘레길이다. 걷기에 수월해 천천히 걸어도 2시간 남짓이면 모두 걸을 수 있다. 조붓한 오솔길은 소설을 테마로 열어서 갈래의 길로 나뉜다. 『소나기』의 '들병이들 넘어오던 눈웃음길', 『동백꽃』의 '점순이 나를 꼬시던 동백숲길', 『봄봄』의 '장인 입에서 할아버지 소리 나오던 데릴사위길' 같은 식이다.

따뜻한 봄볕에 훈훈한 봄바람이 부는 이맘때. 춘천은 그 이름처럼 봄의 땅이다. 춘천을 여행할 계획이라면 혼자여도 좋고 마음이 통하는 그 누구와 함께해도 괜찮다. 이국적인 정원과 작가가 영감을 얻었던 숲길을 거닐며 희망을 가슴에 담을 수만 있다면. **KNP**

‘직원이 곧 브랜드다’

회사원과 유튜버 사이 ‘임플로이언서’ 대세로 떠오른 마케팅



1,098,250

98,250



최근 자사 직원을 내세우며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임플로이언서(Employee+Influencer)’, ‘공무원 유튜버’라고 불리는 이들이 전문성과 친근감을 바탕으로 대중의 신뢰와 호감을 얻는 중이다. 기업 입장에서 저비용 고효율 홍보 방식으로 주목하고 있다. 크리에이터의 새로운 축으로 떠오른 임플로이언서 그리고 직원 창작 콘텐츠의 면면을 살펴본다.

글 김주희

셀럽 대신 직원 등판, 마케팅의 새로운 지형도

‘A 브랜드 마케터가 추천하는 확신의 썸뿔’, ‘B 기업 홍보팀 신입사원의 좌충우돌 브이로그’, ‘C 공무원이 강추하는 ○○시 숨은 명소’... 유튜브에서 흔히 접하는 영상 제목이다. 최근 몇 년 사이, 기업의 임직원이 직접 모습을 드러내는 콘텐츠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브랜드 계정에서 운영하는 채널에 출연해 직접 제품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가 하면, 하루 일과를 영상에 담아 업무 환경이나 기업 문화를 소개하면서 취업 준비생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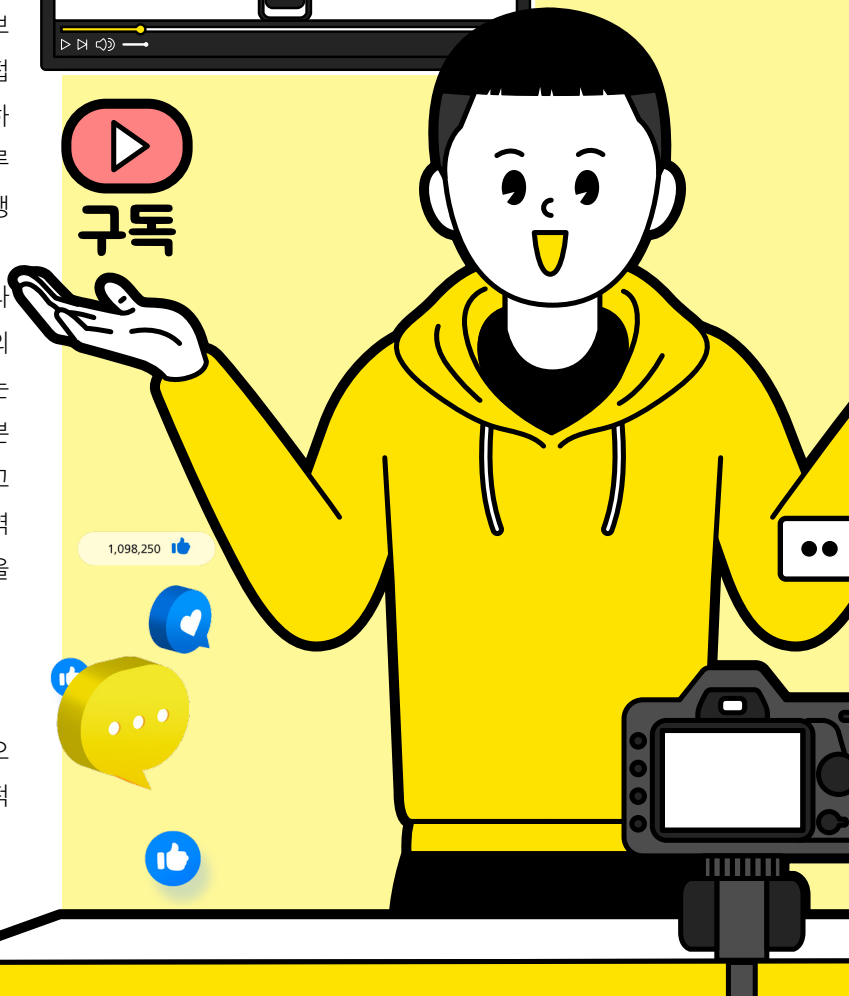
이처럼 임직원이 등장하는 콘텐츠가 점점 많아지면서 ‘임플로이언서’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 임플로이(Employee)와 인플루언서(Influencer)의 합성어로 자신이 속한 회사와 관련된 콘텐츠를 선보이는 사람을 일컫는다. 회사원과 유튜버 사이에 자리한 이들은 금융, 유통, 패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며 상품을 홍보하거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한다. 기존에 유명인이나 연예인, 모델 등 일명 셀럽(Celebrity)이 했던 역할을 대신하는데, 단순히 유명인을 ‘대체’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색깔을 입힌 ‘고유한’ 콘텐츠를 창출하며 대세 마케팅의 주인공으로 거듭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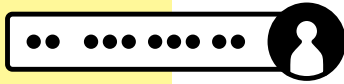
낮은 비용으로 효율성과 신뢰도 극대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무실에서 브이로그 영상을 찍는 직원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았다. 하지만 요즘은 기업들이 임플로이언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추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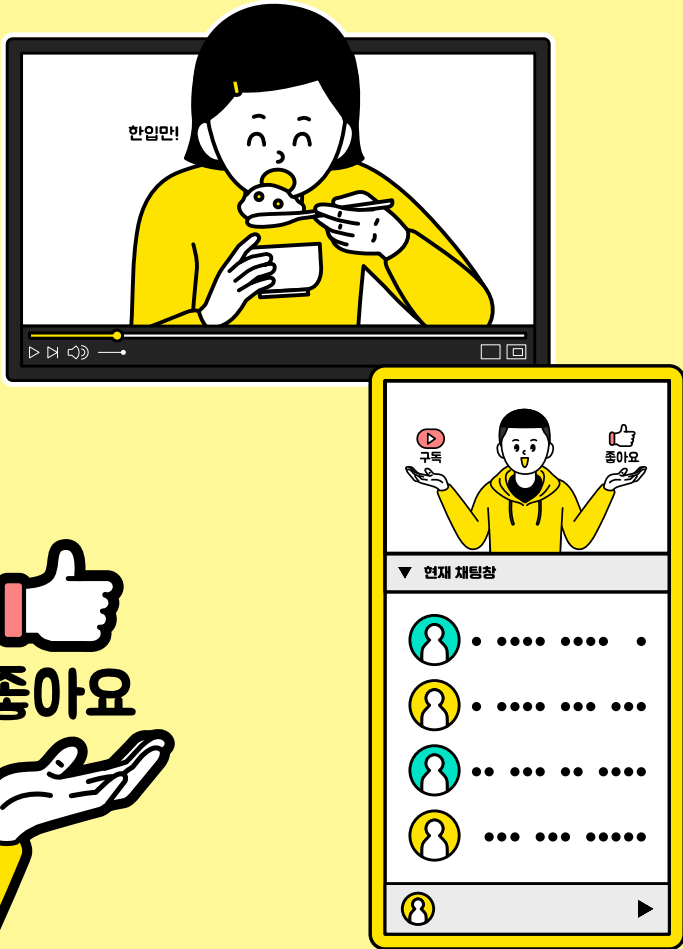


1,098,250





단순히 유명인을 ‘대체’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색깔을 입힌 ‘고유한’ 콘텐츠를
창출하며 대세 마케팅의 주인공으로 거듭났다.



인플루언서의 가장 큰 장점은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연예인이나 유명 인플루언서를 섭외하기 위해서는 고비용을 지출해야 하지만, 회사 내부 직원을 활용할 경우 비용이 현저히 절감된다. 모델의 사적인 논란 때문에 자칫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입는 리스크도 최소화할 수 있다. 브랜드의 톤앤매너(tone&manner)에 맞는 가이드 라인을 고수하며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도 수월하다. 또한 일정 조율이나 세부 변동 사항을 빠르게 적용할 수 있으므로 기업 입장에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비용 대비 매우 효율적인 수단일 수밖에 없다.

내용도 풍성하게 꾸릴 수 있다. 브랜드나 제품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숙지한 인플루언서는 전문적인 정보를 전달한다. 잘못된 정보가 전달될 확률이 낮고, 소비자가 제품에 대해 질문했을 때 즉각적으로 답변하는 것도 가능하다. 소비자 눈높이에서 제품 개발 과정이나 비하인드 스토리를 풀어주며 제품의 이해도를 한층 높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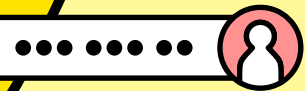
무엇보다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는데 효과적이다. 뒷광고 이슈에서 자유로워 진정성이 있다고 평가받는다. 특히 제품이 마냥 좋다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인플루언서가 자신의 주관에 바탕으로 꾸밈없이 의견을 말함으로써 브랜드에 대한 투명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기업과 직원의 상생 효과 기대, 기업 리스크도 대비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기업과 직원이 함께 시너지를 발현하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직원 입장에서 인플루언서는 커리어를 확장하는 수단이 되기에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또한 자신이 속한 기업이 '트렌디하고 깨어 있는 회사'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게 된다면 직원 역시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이 고취되고, 이는 다른 직원의 참여까지 이끌어내는 선순환을 불러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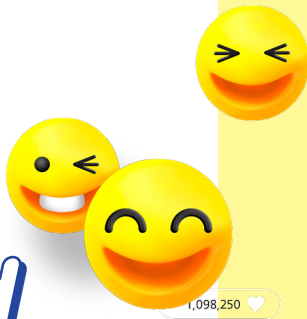
한편 인플루언서 마케팅에도 리스크가 존재한다. 기업이나 브랜드를 대표해 인지도를 쌓은 직원이 갑작스럽게 퇴사한다면 이를 대체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기존 인플루언서가 두터운 팬층을 확보했을 때, 대중이 새로운 사람을 반기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기업은 인플루언서의 부재에 대응하는 방법을 마련해 놓는 것이 좋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전망이다. 기업이 적극적으로 인플루언서를 양성하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지금까지 성공 사례로 손꼽히는 콘텐츠를 그대로 따르기보다 각 기업과 브랜드만의 색깔을 입힌 콘텐츠, 타겟 소비자에 최적화된 고객 중심의 콘텐츠로 차별화를 꾀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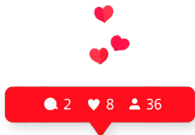




임플로이언서 활용법 및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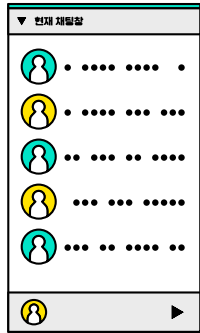


임플로이언서를 활용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제품 자체를 홍보하며 매출 확대를 목표로 하는 것과
사내 스토리를 소개하며 기업 이미지와 호감도를 높이는 방식이다.
대놓고 직원을 스타로 양성하는 케이스도 있다.



이미지 출처

- 활용법 1: 러쉬 코리아 공식 유튜브 캡처
- 활용법 2: 넥스 공식 유튜브 캡처
- 활용법 3: 충주시 공식 유튜브 캡처



활용법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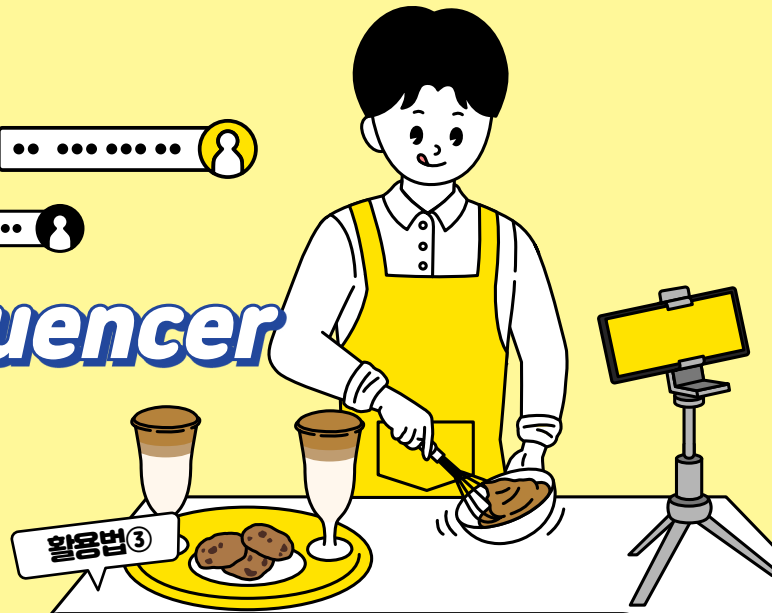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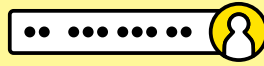
덕질을 부르는 제품 홍보: 고객의 마음을 읽다

‘러쉬 코리아’의 유튜브 채널에서 직원들은 직접 제품을 사용하면서 피부 유형, 계절 및 기념일에 따른 맞춤 아이템을 추천한다. 특히 제품을 사용한 적이 없는 시청자들도 향이나 촉감을 예측할 수 있도록 생생한 후기를 전한다. 무조건적인 제품 찬양은 오히려 거부감을 불러오는 터. 자신의 취향에 맞지 않거나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제품에 대해서도 진솔하게 이야기한다.

‘민음사TV’는 출판사 민음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책보다 재미있는 책 이야기’라는 콘셉트 아래 기존 출판사의 틀을 벗어난 콘텐츠를 전개한다. 읽기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벽돌책이라는 오명을 입은 문학전집을 소개하는 ‘세계문학전집 월드캡’은 꾸준히 사랑받는 대표 시리즈다. 노벨문학상, 여성작가, 단편 등 카테고리별로 나눠 책을 소개하는데, 친근한 진행과 꾸밈없는 화법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책 ‘덕질’을 유발한다.

이 밖에도 CU와 올리브영 또한 임플로이언서를 통해 신제품을 홍보하는 중이다. 제품 홍보 콘텐츠의 핵심은 고객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해 주는 데에 있다. 브랜드가 아닌 고객 중심의 콘텐츠를 전개하며 신뢰를 얻는 것이다.

Employee + Influencer



활용법②



활용법③



리얼리티가 살아 있는 비이로그: 갓생 살기로 더 친근하게

'삼성전자 반도체'는 임플로이언서의 일상을 보여주는 비이로그 콘텐츠를 선보인다. 실무자를 통해 직무 정보를 전달하고 자연스럽게 사내 문화나 조직 분위기도 보여 준다. '직장인 비이로그', 'S 로그', '삼중생활' 시리즈까지 다양한 콘텐츠가 있다. 부서, 직무, 직급별 업무가 각기 다른 양상을 띠므로 폭넓은 내용을 다룬다. 사내 식당, 헬스장 등을 사용하는 모습과 사내 행사에 참여하는 비이로그 등 리얼리티가 살아 있는 직장생활은 흥미를 돋우기 충분하다.

'넥슨 YouTube' 채널도 인턴십 홍보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다. 정규직과 동일하게 넥슨의 실질적인 업무를 경험할 수 있는 인턴십 프로그램 '넥토리얼'을 다룬 콘텐츠를 선보이는 것. 직원들이 사내 카페, 옥상 농구장과 산책로 등 시설을 이용하는 장면을 담거나 점심시간에 선배 직원과 게임을 즐기는 모습, 유쾌한 분위기의 회의 현장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자유로운 조직 문화와 스트레스 없는 선후배 관계를 노출하며 기업 호감도를 높이고 있다.



팬심을 저격한 스타의 탄생: 브랜드 짠편 만들기

'총주사' 채널은 실제 총주사 인구를 훌쩍 뛰어넘는 구독자 60만 명 이상을 확보했다. 채널의 '떡상'을 이끈 김선태 공무원은 딱딱한 공무원 이미지에서 벗어나 유쾌한 모습을 보여주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그때그때 유행하는 밈과 이슈, 상황극 등에 B급 감성을 적절히 엮은 참신한 시도가 돋보인다. 조금 어설피더라도 솔직하고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친근함을 내세운다. 캐릭터의 특징을 고스란히 녹인 콘텐츠로 입소문이 빠르게 퍼졌고, 부러 찾아와 구독하는 팬들도 늘었다. 덕분에 총주사 또한 '도전하고 늘 열려 있는 지역'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었다. 에버랜드 직원이었던 소울리스좌도 임플로이언서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다. 에버랜드의 서브 채널인 '티타남(티익스프레스 타주는 남자)'에 올라온 소울리스좌의 영상은 강력한 중독성으로 큰 화제를 모았다. 대중은 빠른 랩 형식의 영혼 없는 멘트로 놀이기구 탑승을 안내하는 소울리스좌의 모습에 환호했다. 또한 티타남은 직원들이 단체로 유쾌한 춤을 추는 등 에버랜드를 배경으로 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업로드하고 있다. 이는 에버랜드 인지도를 높인 것은 물론 직원들과 시청자가 끈끈한 유대감을 쌓는 데 큰 역할을 했다. ¹⁾

살맛나는 KNF
+
그땐 그랬지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음악 원석들의 향연

때로는 있는 그대로의 자연미가 아름답게 다듬어진 조형미보다 더 큰 감동을 선사한다. 대학가요제와 강변가요제의 전성기에 출전한 아마추어 가수들이 그러했다. 저마다의 상황과 성향을 토대로 만든 개성 넘치는 음악을 선보인 이들의 무대는 다소 거칠었음지언정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무한한 가능성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다.

글. 강진우 문화칼럼니스트



• 여름엔 대학가요제, 가을엔 강변가요제 •

우연히 신해철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접한 직후였을 것이다. 무언가에 홀린 듯 그에 관한 유튜브 영상을 연신 찾아보던 중 2대 8 가르마를 탄 풋풋한 대학생 시절의 신해철이 전주만 들어도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명곡 '그대에게'를 세상에 처음 공개하는 모습을 포착했고, 그 무대를 5분여간 넋 놓고 지켜봤다. 영상의 제목 말미에는 이런 문구가 붙어있었다. '1988년 제12회 MBC 대학가요제 대상'. 그 순간 김숙이 잠들어 있던 기억들이 수면 위로 급부상했다. 그래, 맞아. 산울림, 심수봉, 송골매, 김경호, 김동률, 장윤정... 이름만 들어도 머릿속 플레이리스트가 재생되는 쟁쟁한 가수들도 대학가요제를 거쳤지.

희상은 자연스럽게 강변가요제로 연결됐다. '여름에는 대학가요제, 가을에는 강변가요제'라는 말이 떠올랐을 정도로 두 가요제의 위상이 높았던 만큼, 강변가요제에서도 수많은 레전드 무대가 펼쳐졌다. 신해철의 밴드 무한케도가 대학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은 바로 그해, 9회차를 맞은 강변가요제에서는 이상은의 '담다디'가 영예의 대상을 받았다. 레전드 가수로 손꼽히는 이선희는 1984년 강변가요제에서 '에게'로 대상을 받으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고, 우리나라의 대표 로커 중 한 명인 김경호는 1991년 동상을 손에 쥐며 주목받았다. 2000년대 초반 전후 애절한 발라드로 큰 인기를 얻은 김현성도, 오늘날까지 빅마마의 멤버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이영현도 강변가요제 무대를 밟았다.



[출처: 유튜브 채널 엠플리(MBC playlist)]

• 음악의 산업화에 힘을 잃은 가요제 •

1970년대 말 출발한 뒤 80~90년대에 전성기를 맞은 대학가요제와 강변가요제는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음악 원석들의 등용문과 같은 역할을 했다. 아마추어 가수가 자작곡으로 출전하는 가요제였기에 작사, 작곡, 가창, 편곡, 무대 매너 등 여러 측면에서 기성 가수 대비 아쉬움이 있었지만, 오히려 두 가요제에서만 만날 수 있는 날것 그대로의 거칠고 투박한 느낌이 대중의 인기를 끌어오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풋풋함과 패기 넘치는 공연을 통해 참가자들이 앞으로 어떤 음악 인생을 펼쳐 나갈지를 상상하는 재미도 상당했다. 요컨대 아마추어 가수들의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무한한 잠재력이 사람들의 상상력과 기대감을 무한대로 자극했던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두 가요제는 급격하게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체계적인 가수 육성 시스템을 갖춘 연예 기획사가 속속 등장하고 이를 통해 데뷔, 성공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가요제 출전 대신 연습생을 택하는 가수 지망생이 빠르게 늘었다. 대학생 수가 급증하면서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건재하던 대학 생활에 대한 로망이 한결 힘을 잃었다는 점, 대중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은 참가자들의 자작곡에서 참신함과 독창성을 찾아보기 힘들어졌다는 점, 유행 대신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하려는 아마추어 음악인 대다수가 흥대를 중심으로 한 인디 음악 쪽으로 선회했다는 점, 독창성이 아닌 가창력과 퍼포먼스를 평가하는 경연 프로그램의 선풍적인 인기 등이 대학가요제와 강변가요제의 쇠락을 부채질했다. 결국 두 가요제는 각각 2012년과 2001년에 폐지 수순을 밟고 말았다.

• 가능성과 잠재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K팝의 본고장에 살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그때가 좋았으며 종종 가요제의 추억을 소환한다. 연예 기획사의 육성 시스템을 통해 성장한 K팝 스타들은 거의 모든 측면에서 완성된 이른바 '육각형 가수'인 경우가 많지만, 그들에게서 가요제 참가자들과 같은 참신함과 잠재력을 찾기는 쉽지 않다. 비슷한 음악, 비슷한 창법, 비슷한 춤은 K팝의 상향 평준화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K팝이 그만큼 획일화돼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수십 년간 이어진 가요계의 비슷한 모습들에 상당수 대중은 피로감을 호소하며, 이는 곧 대학가요제와 강변가요제에서 볼 수 있었던 아마추어 가수들의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에 대한 그리움으로 이어진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80~90년대 두 가요제의 다양한 공연 영상에 '2024년에 보고 있는 사람?'이라는 댓글을 달며 수십 년 전의 촌스러운 무대에 새삼 감격스러워하는 이유다. **KNF**

곳곳에 잠자고 있던 가능성과 만날 시간

See Through 2부



'리나갤러리'는 약 17년간 신진 작가 및 역량 있는 작가를 소개하기 위한 전시를 선보여 왔다. 지난해 12월 부산지점을 개관하며 그간 함께해 온 작가들의 작품을 총망라한 전시를 3부로 기획했다. 1부는 지난 2월 막을 내렸고, 4월까지 2부 전시가 열린다. 미술시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작가들 또는 부산에서 접하기 어려웠던 작가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로, 그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를 탐구해 보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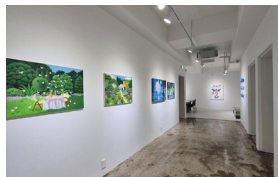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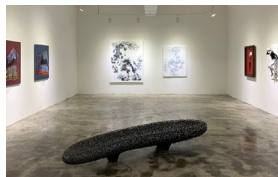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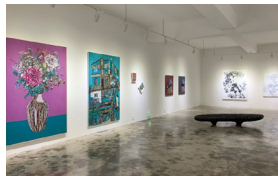
전시

EXHIBITION

📍 **장소:** 리나갤러리 부산점

📅 **기간:** 2024. 2. 27.~4. 27.

🎫 **티켓:** 무료



Via Air Mail(비아 에어 메일)



생텍쥐페리의 『야간 비행』을 모티브로 한 창작 뮤지컬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항공 우편기들이 하늘의 항로를 개척하기 시작한 1920년대를 배경으로, 파일럿들의 경쟁과 우편비행 행사 파비아, 그의 아내이자 작곡가인 로즈, 우편국장 라비에르, 메일보이의 이야기를 그린다. 변화와 혼란의 시대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꿈을 꾸었던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뮤지컬

MUSICAL

📍 **장소:** 대학로 TOM 1관

📅 **기간:** 2024. 3. 6.~5. 26.

🎫 **티켓:** R석 7만 원, S석 5만 원





따듯해지는 날씨와 함께 곳곳에서 피어나는 꽃처럼, 잠재력도 관심과 애정에 따라
재능으로 피어오르기 마련이다. 내 안에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타인에게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다양한 문화생활 속에서 발굴하고 탐미해 보길 바란다.

정리. 편집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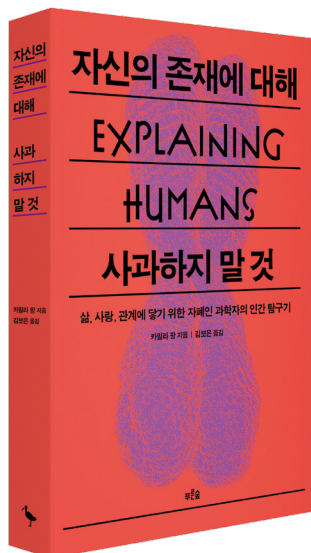
자신의 존재에 대해 사과하지 말 것

이 책은 '행성을 잘못 찾아온 것 같다'라고 생각하던 다섯 살 여자아이가 유일하게 이해할 수 있던 과학이라는 언어를 만나 공감, 이해, 신뢰와 같은 불가사의한 감정에 가닿는 이야기이자, 평생 자신의 삶을 실험실 삼아 실패한 실험을 쌓아온 기록이다. 오랜 시간 ADHD, 범불안장애, 강박장애, 감각처리 장애와 함께 살아온 저자가 자신의 신경다양성 특징을 '비정상'이 아닌 '차이'로 받아들이고 차츰 삶을 이해하게 된 이야기를 들어보자.

책

BOOK

출판사: 푸른숲
저자: 카밀라 팡



닭강정

지난 3월 넷플릭스에 공개된 드라마 시리즈로, 2019년 네이버 웹툰 '지상최대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동명의 웹툰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의문의 기계에 들어갔다가 닭강정(?)으로 변한 딸 민아(김유정)를 되돌리기 위한 아빠 선만(류승룡)과 그녀를 짝사랑하는 백중(안재홍)의 코믹 미스터리 추적극이다. '사람이 닭강정으로 변한다'라는 신선한 발상으로 새로운 재미를 선사할 이 이야기에 주목해 보자.

드라마

DRAMA

감독: 이병헌
출연: 류승룡, 안재홍, 김유정(특별 출연)



• 『도을, 시진핑을 말하다』 •



이 책은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철학자인 도을 김용욱 선생이 해박한 동양철학 지식을 기반으로, 후진타오 전 주석에 이어 중국을 이끌어 가고 있는 시진핑의 삶에 대해 이야기한다. 중국의 정치의 중심에 선 시진핑의 삶을 통해 현재 중국의 권력구조와 정치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염준호 처장의 추천사 •



어린 시절 시진핑은 아버지 시종손에게 논어에 나오는 ‘恕(서)- 己所不欲, 勿施於人(기소불욕 물시어인)’을 배웁니다. 자기가 원치 않는 것은 남에게도 베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이르는 ‘내가 대접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의미의 ‘황금율’과 같은 맥락이죠. 내가 대접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든,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않든 그 근본은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러한 마음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마음가짐을 다짐으로써 더 밝고 살 만한 세상이 되기를 바라며 이 책을 추천합니다.

최고 지도자의 삶의 기조가 된 한 마디 『도을, 시진핑을 말하다』

염준호 처장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에 대해 관심으로 관련 책을 찾아보던 중 이 책을 만났다. ‘중신토록 행할 만한 일언(一言)’이라는 말로 시작된 가르침이 시진핑의 삶을 두드렸듯, 염준호 처장의 마음에도 깊이 남은 듯했다.

Voice. 기획처 염준호 처장





『문학의 속삭임』은 신청을 통해 우리 임직원 중 한 분을 선정, 직접 추천하고 싶은 책 한 권을 골라 인상 깊었던 구절을 읽어주는 코너입니다. 큐알코드 스캔 후 연동되는 페이지에서 재생(▶) 버튼을 누르시면 이번 호에 선정된 염준호 처장님이 읽어주는 『도움, 시진핑을 말한다』의 일부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 ① —

시종쉰이 아들 시진핑에게 어려서부터 가르친 유명한 『논어』의 한 구절이 있다. 아마도 이 한마디는 시진핑의 인생을 지배하는 가치관의 원리가 되었을 것이지만, 이는 진실로 시종쉰의 품성과 인격을 나타내주는 격언이기도 하다. 『위령공』편에 공자의 수제자로 부상(富商)이었고 충성심이 강했으며 공자 사후에 공자의 학문을 세상에 알리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자공(子貢, 위(衛)나라 사람)이 공자에게 여쭙어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

“일언으로 종신토록 행할 만한 것이 과연 있겠나이까?”

— ② —

공자는 말한다: “그것은 서(愨), 그 한마디일 것이다!” 공자는 그 ‘일언(一言)’이야말로 ‘서(愨)’ 그 한마디일 것이라고 말한다. ‘서(愨)’라는 글자를 한번 살펴보자! 윗부분에는 갈을 여(如) 자가 자리 잡고 있고, 아랫부분에는 마음 심(心) 자가 자리 잡고 있다.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 ‘여(如)+심(心)’이 되고, 그것은 ‘내 마음이 타인의 마음과 같아진다’는 뜻이 된다.





#벚꽃

김★영(1605)

- 벚** 꽃 피는 계절 같이
- 꽃** 놀이 갈 사람이 없네... 흐으읍ㅠㅠ!!

♡ Q ▼

김★태(8311)

- 벚** 꽃이 피면
- 꽃** 보다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그대가 보고 싶어진다.

♡ Q ▼

이★종(6713)

- 벚** 꽃 흩날리는 배경 속
- 꽃** 보다 향기로운 그대

♡ Q ▼

장★익(3944)

- 벚** 나무 아래서 있는 너는
- 꽃** 보다 아름답구나!

♡ Q ▼



#새싹

이★종(6713)

- 새** 로운 인연이
- 싹** 트는 봄

♡ Q ▼

김★태(8311)

- 새** 로운 출발을 시작한 그대여
- 싹** 이 자라나듯 언제나 푸르른 앞날만 가득하길

♡ Q ▼

김★신(5457)

- 새** 하얀 눈꽃 속에도
- 싹** 이트네요

♡ Q ▼

이★건(3822)

- 새** 로운 계절, 봄이 왔음을 알리는 건 아마도
- 싹** 틔우는 꽃들이겠지

♡ Q ▼

이★돈(4728)

- 새** 로운
- 싹** 이 튼다파이팅!

♡ Q ▼

나★준(1310)

- 새** 새 옷을 샀다!
- 싹** 싹 다 별로다...

♡ Q ▼

#봄마중



건강관리실

- 봄** 철왕사
- 마** 스크
- 중** 요해요

♡ Q ▾

권★오(9873)

- 봄** 이 오니 추운 날씨도 차가웠던
- 마** 음도 따뜻해지는
- 중** 입니다.

♡ Q ▾

지★민(2867)

- 봄** 동 100g 추가한
- 마** 라탕 배달 리뷰이벤트 참여할게요
- 중** 양현관 비밀번호 1234*

♡ Q ▾

이★희(0262)

- 봄** 만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 마** 음에 들지 않는
- 중** 국발 황사

♡ Q ▾

김★미(6381)

- 봄** 이 오니 날씨가 따뜻하여
- 마** 스크 벗고 가족들과 나들이 가니
- 중** 요한 내 인생의 멋진 하루가 된 것 같다

♡ Q ▾

정★진(0440)

- 봄** 내음에 흠뻑 떠나고 싶어
- 마** 음이 두근두근
- 중** 간에 네 생각도 했어

♡ Q ▾

박★현(0927)

- 봄** 날의 따스한 햇살 아래
- 마** 음껏 에너지를 내뿜는 원자로
- 중** 요한 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봄을 맞이하는 것

♡ Q ▾

이★선(2795)

- 봄** 이 오고 있어요
- 마** 침내 꽃이 피려나 봐요
- 중** 요한 건 껴지 않는 마음이에요

♡ Q ▾

이★정(3738)

- 봄** 이 와서 그런지
- 마** 음에 봄바람이 불어
- 중** 단했었던 운동을 다시 시작해 봅니다.

♡ Q ▾



독자마당

• 독자 후기 •



KNF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안전한 일터 조성이 국민적 관심사가 된 현 시점에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고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의지가 로드맵을 통해 잘 표현돼 있는 것 같네요. 또한 사고 발생 문제점을 사업장별로 심층 분석해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과 함께 중대재해에 대한 근원적인 예방수칙을 또한 잘 구현돼 있어 중대재해 제로의 안전모범사업장으로 KNF가 좋은 롤모델 제시해 주실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 유★열(1662)

<노심설계처 여직원 6인의 휘낭시에 만들기>를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직무 특성상 원래 세심하고 꼼꼼한 분들이시겠지만, 이렇게 토픽을 엮는 작업을 통해 더욱 섬세함과 집중력으로 무장하고 팀워크 동료애도 함께 느껴보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유★범(9107)

'그땐 그랬지' 코너의 <세기말을 뒤쫓은 '웃픈' 해프닝>을 읽고 있노라니 나도 모르게 빙그레 미소 짓게 됩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종말론부터 컴퓨터 Y2K 오류 등 참으로 아이없는 해프닝이 당시에는 왜 이렇게 심각하게 여겨졌는지 쓴웃음만 납니다. 그리고 보니 우리 인생도 시간이라는 약만큼 좋은 해결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에 집중하고 성실히 살아간다면 밝고 행복한 미래는 당연한 것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 조★길(6499)

• 1·2월호 스토쿠 문제&정답 •

3	8				1			4
		2	6					7
			4	8	7			3
				4		2	3	9
2		1				4		6
4	9	5		6				
6			8	5	4			
	7				6	8		
8			7					9
								2

3	8	7	5	2	1	9	6	4
5	4	2	6	3	9	1	7	8
9	1	6	4	8	7	5	2	3
7	6	8	1	4	5	2	3	9
2	3	1	9	7	8	4	5	6
4	9	5	3	6	2	7	8	1
6	2	9	8	5	4	3	1	7
1	7	3	2	9	6	8	4	5
8	5	4	7	1	3	6	9	2

• 1·2월호 스토쿠 당첨자 •

강★구(6915)	김★이(4517)	양★은(6424)	이★민(4259)	정★진(6091)	고★주(6090)	김★신(5457)	오★연(5438)
이★예(1975)	조★연(8732)	권★오(9873)	니★준(1310)	우★화(7526)	이★선(2795)	주★영(8230)	김★태(8311)
박★현(0927)	유★남(2264)	이★홍(2690)	지★석(1263)	김★남(6918)	박★진(9763)	이★연(8928)	이★직(6526)
최★은(7887)	김★태(1232)	박★영(7692)	이★경(7199)	이★건(3822)	최★석(9852)	김★영(1605)	박★우(2017)
이★민(0518)	이★훈(4030)	표★숙(3208)	김★미(6381)	백★엽(0776)	이★종(6713)	장★동(7526)	허★진(6627)
김★하(2637)	송★한(1994)	이★돈(4728)	장★현(2953)	홍★현(6971)	김★훈(6909)	송★희(1754)	이★희(0262)
정★진(0440)	김★욱(1834)						

독자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 📅 응모 기간 상시 모집
- 📄 당첨자 선물 커피 상품권
- 📧 보내실 곳 편집실(songji@knfc.co.kr)

▶ 원고를 보내주실 때 이름과 연락처를 꼭 적어서 보내주세요.

격월로 발행하고 있는 <원자력연료>에서 독자 여러분의 행복한 일상이 담긴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주제로 여러분의 따스한 이야기를 <원자력연료>와 함께 해주세요.



Find your potential Unlock your potential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
내안에 잠자고 있던 또 다른 가능성을 깨워보세요



안드로이드용



iOS용

QR코드를 스캔하면
〈원자력연료〉를 모바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